

출가절에 듣는 큰스님 경책

25일은 부처님 출가일이다. 2천5백여년전 석가족의 왕자였던 싯달타 태자는 명예와 권세와 인연을 모두 떨쳐버리고 진리를 향한, 험난한 출가의 길로 향했다. 오늘날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사원한 이들은 어떠한 다짐과 각오로 삭발염의와 머주하는가. 응수 보살은 <지도론>에서 몸과 마음이 출가한 사람, 마음은 출가하고 몸은

출가 못한 사람, 몸과 마음이 출가하지 못한 사람, 몸은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 못한 사람 등 네가지의 출가자가 있다고 했다. 어수선했던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 맞는 부처님 출가일, 깨달음을 향한 청정수행의 기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 큰스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책을 듣는다. <편집자 주>

“아집 버리고 화합 정진”

서용스님 <고불총림 방장>



정정한 승가의 기능은 오로지 출가의 행(行)에 근원을 두는 것이다. 출가란 한마디로 '버리고 떠남'이다. 버리고 모순과 갈등을 버리고 본질적인 세계로 지향하는 행위이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이해와 사랑으로써 화합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출가행(出家行)이다. 출가행은 또한 대승보살정신으로 이어진다. 내 개인 보다는 나와 관계된 수많은 이웃과 공동체와 상관관계를 맺는 것이다.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세속적인 명리(名利)를 위해서인가. 재물을 탐해 서인가. 출가의 목적이 명리도, 재물도, 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구해가야 하는지 더 말할 것도 없다. 출가한 근본 뜻은 오로지 불조(佛祖)의 해명(慧命)을 이어받아 내 자신을 구제하고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출가자들은 크게 버려야 한다. 크게 얻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베풀어야 한다.

“종교적 인격·덕성 갖춰라”

석주스님 <칠보사 주살>



불교에서 '복전(福田)'이란 출가한 스님을 지칭한다. 출가자가 중생의 참다운 복전이 되려면 출가자다운 덕성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종교인이 남의 존경과 보시를 받는 것은 결코 그 신분 때문이 아니다. 무술이나 병법에 능하지 않으면 장군이 아니듯이, 종교적 인격과 덕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가 열반전에 즈음해 과연 내가 이런 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모든 종교인은 존경을 받는 만큼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자격이 받는 존경은 나중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돼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정진하며 내 마음과 몸부터 조복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방편 쓰달리면 허송세월”

덕암스님 <태고종 종정>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스님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았다고 회고하는 이들이 많다. 초발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출가의 뜻을 늘 간직한다면 한시도 방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불교가 시끄럽고 제 모습을 잃어간다는 얘기가 많은 것도 스님들이 공부를 안해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이 흐려진 탓이다. 성불하고자 출가한 스님들이 부처님 닮고자 하는 공부할 것 없이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경전을 다 안다하더라도 수행력이 없으면 중생구제를 못한다. 방편에 쓰달려 살다보면 허송세월만 하게 된다.

“왜 출가했는지 되새겨야”

성수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사람으로 태어나 출가의 인연을 맺기란 힘든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귀한 절차가 바로 출가다. 스님이 되려는 이들은 부처님 출가일에 출가를 했으면 한다. 아무날이나 출가를 하니 중도 못되고, 부처도 못되는 것이다. 출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뜻을 가지고 하는 출가. 포부가 있는 출가. 중이 되는 목적이 분명한 출가를 해야 한다. 3가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출가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출가를 하기위해 나라이 간혹본 역적죄, 부모말 안듣는 불효죄, 부인에 대한 배신죄, 자식을 버린죄 등 네가지 죄를 지었다. 이런 큰 죄를 짓고도 3천년간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있는지를 스스로 물어 보고, 제대로 알고나서 중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도 해야 한다. 왜 출가를 했는지 근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일이야말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수행자의 첫 조건은 지계”

범흥스님 <원효종 종정>



출가자는 득도할 때 부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계를 받는다. 마땅히 이 계를 받으며 어김없이 행하겠다고 부처님께 굳게 맹세한다. 다음은 처음 마음을 배우고(초발심), 마음을 보고자 하는 글을 익히고(자경문), 자기를 찾는 글을 배우며(발심수행장) 스님이 되어가는 수행에 정진한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일이다. 수행자가 계를 지키지 못하고 해이해지면 경생을 닦는 데도 도를 구할 수 없다. 애써 뜻을 세우고 출가한 본의가 아무런 가치 발휘를 하지 못한 채 오욕의 고풍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부처님 뒤를 따르겠다고 서원한 불자라면 옛 조사들의 유훈을 받들어 깊이 반성해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닦아 무명악도의 고풍을 벗어나도록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중생제도 출가자의 의무”

광우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발심공덕은 참으로 수승한 것이다. 처음 발심할 때 생각을 이룬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출가자가 대담한 입지발원으로 입산을 한다. 모든 인연을 끊고 발심출가했는데 그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입지발원이 흐려지고 게으르게 된다. 나 자신도 방일하지 않기 위해 늘 뒤돌아보면서 입지발원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한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출가자의 도리가 아니다. 출가의 목적은 자기완성과 함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있다. 이것은 바로 출가자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은 열심히 수행함으로써만이 행할 수 있는 부처님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혼을 아껴 수행하기도 시간은 부족하다. 오직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또 정진해야만 한다. 출가자의 본분이, 의무가 이런진대 어찌 한 눈을 팔 수 있겠는가.

조계종 年 4백명 입산 천태종 행자과정 3년

각종단 교육강화...고학력 추세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2천5백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싯달타 태자의 뒤를 이어 부처님이 되고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명리를 뒤로 하고 산문에 들어선다. 조계종의 경우, 90년 행자교육이 개설된 해에는 4백71명, 91년 489명 등 년평균 출가자 수는 4백여명이다. 90년 이후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출가사미·사미니는 모두 3천9백37명이다. 이들은 출가 사찰에서 최소 6개월의 행자교육을 받고, 다시 조계종 교육원이 개설한 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동안

합동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사미·사미니가 된다. 이후 4년 동안의 엄격한 기본교육과정 거쳐야 비로소 정식 승려인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강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초선원이 개설돼 있다. 산문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최소한 4년7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가 되는 것이다. 최근 행자교육 입방자를 분석한 결과 출가자의 고학력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자교육원 1기(87년)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25%였다. 이에 비해 98년 가을에 입학한 15기의 경우는 30명, 이번 24일부터 적지사에서 시작하는 16기는 39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출가와 학력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세속을 떠나는 마당에 학력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러나 회향의 마당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속세과정과 다르다. 정에서 세속 학력은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은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분사주의의 추천을 받아야 입산을 받아들인다. 고학력 추세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장 일민스님은 “공정적인 현상”이라며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것이며, 발심출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세속의 알음알이리는 필러로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깨뜨리는 일은 기존의 스님과 교육원의 입부”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스님 수는 모두 1만1천9백90명(99년 3월 현재), 사미 2천1백71명, 사미니 1천8백11명, 비구 4천79명, 비구니 3천9백29명이다. 태고종은 매년 120명 정도가 출가한다. 개인적으로 종단이 인정한 행자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행자수업을 받은 후 선암사에 실관되는 합동교육수계산람에서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 계를 준다. 현재 태고종 스님 수는 6천여명으로 이중 비구니스님은 7백명 정도다. 천태종은 매년 10여명 정도가 출가한다. 이들중 비구니의 수는 60%를 점하는데 3년의 행자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승려가 된다. 천태종은 3년이라는 행자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함께 때문에 스님이 된 후 환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천태종의 승려수는 비구 비구니를 합쳐 4백50명 정도이다. 태고종과 천태종 모두 고졸 이상이어야 출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 전체 승려 수는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경숙·정성순 기자(swjung@buddhapia.com)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서산스님은 <선가구감>에서 출가의 위대함과 출가자의 본분을 밝혀놓았다.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출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것 입산할 때의 마음가짐이, 불교에 입문할 때 가졌던 초발심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마음 비워 오직 법대로 살길 힘써라”

- 출가란 마음을 눌러 깊이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여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 오직 법대로 살기만을 힘씁니다. <오분율>
- 삭발하는 형식만으로 출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정진(大精進)을 일으켜 중생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려 할때 출가라 한다. <비화경>
- 구족계를 받는 것만으로 출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악행을 끊게 하고, 선을 닦게 하는 것을 출가라 한다. <대승수행보살행문제경요집>
-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들과 늙음과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와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근소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다. <중이화경>
-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출가하여 부처님 밑에서 수행한다. <집이화경>
- 수행자가 일곱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번뇌를 없애려 하면 곧 없앨 수 있게 되느니라. 그것은 법을 알고 이치를 알 때를 알고 자기를 알며 만족할 줄 알고 대중 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중이화화경>
-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매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정경>
- 출가해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야로 정진해 머리에 붙은 불을 구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미륵성불경>
- 수행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일곱가지 법을 말하리니 명심하라. 비구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화순하고 위아래가 서로 받들며 선정을 쌓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로 화합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되 게으르지 않아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영욕을 힘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잠을 많이 자지 말고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음양술수를 배우지 말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느니라. <중이화화경>
- 출가수행자는 여인을 마주보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말라. 만약 함께 이야기할 때는 똑바른 마음으로 나는 출가 사문이다. 흐린 세상에 태어났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순위가 되는 이는 누님으로, 나이 적은 이는 누이동생으로, 어린 이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십이정경>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정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사(主舍)이 사계절에 푸르며(常綠)를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람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할과 인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려(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은 토종 소나무농장주가 이번호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증합영양강장(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솔순, 솔씨방, 솔마디, 송화가루, 송진, 송근백피, 송목피, 송이버섯, 백복령, 적복령,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 당귀, 감초, 표고버섯, 홍삼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중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일영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유희종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평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증합강장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한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	--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